

광양시 유일의 섬 '배알도' 빛장 연다

보도교서 접근하는 계단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망덕포구-수변공원 잇는 해상플랫폼 구축할 것



광양시는 최근 광양 유일의 섬 배알도를 전면 개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배알도는 지난해 8월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 해상보도교 준공으로

접근성을 획실했으나 3m가 넘는 호안석축의 추락위험 등으로 출입이 제한됐다.

시는 그동안 정상까지 접근할 수 있는 데크 계단을 설치하며, 상부 수목들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로써 멀리서 바라보지만 했던 배알도는 수변공원을 거쳐 망덕포구의 해안선과 바다를 조망하며,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지난 3월 착공한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현수교식 해상보도교가 2021년 완공되면 망덕포구와 수변공원을 잇는 해상 낭만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8월에는 망덕산에서 배알도수변공원을 잇는 4개 라인의 짚라인 설치 사업을 착공해 내년 2월 대화축제 개막 전까지 마무리하고 축제 방문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어 카누, 카약, 제트 보트 등 수상 레저 관광자원을도 민자유치를 통해 점차 확충해 나간다.

또 올 하반기에는 배알도의 상징과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배알도 관광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안현순 관광시설팀장은 "배알도를 중심으로 운동주와 태인동 김시식 관련 관광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제트 보트, 짚라인 등 역동적인 체험시설로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통합적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덕포구의 운동주 시(詩)거리와 수변공원이 배알도를 중심으로 선으로 연결되면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도(蛇島), 뱀섬이라고 불렸던 배알도는 태인동 가장 북쪽이자 섬진강 하구에 있는 바위섬(0.8ha, 높이 25m)으로, 망덕산의 천자를 배알하는 천자봉조혈(天子奉朝穴)의 명당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휴가철 특별운영

고흥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과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우주발사전망대 특별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운영은 평시 월요일 휴관,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28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관 없이 정상운영 한다는 것.

따라서 전망대 내부 시설을 관람하고 회전식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VR체험관 VR시뮬레이터에는 우주체험을 비롯해 심해탐험, VR바이킹 등 총 30여편의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어 스텝 넘치고 짜릿

한 오감자극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에 VR전망경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제로 촬영된 우주인의 모습을 360°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일몰 후 저녁 11시까지 전망대 야간 LED 조명을 점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발사전망대 주변에는 수려한 다도해 경관과 남달해돋이해수욕장, 몽돌해변 등이 있어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엔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구례군, 'Remind 혁신교육' 실시

구례군이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눠 적극적인 혁신행진 추진을 위한 'Remind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덕림 前 순천만정원박람회 추진단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단장은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함께 느끼고 혁신하는 계기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폭염 대응 및 교통안전 캠페인

보성군은 최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에서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상인회, 이장단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지역주민 등 300여 명과 함께 폭염 대응 및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남도 청년 버스킹 공연을 연계해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이용 지역민에게 생활 속 폭염피해를 예방을 위한 쿨 도시, 쿨 스카프, 부채 등 홍보 물품 3,000여개를 전달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 운전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과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군은 올해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며 이장, 생활관리사 등 폭염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등 폭염 네트워크를 구축 할 예정이다.

보성=안규일 기자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시민 만족도 높아

온·오프라인 설문 진행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설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참여자 66.78%가 만족

을 나타냈고, 22.93%는 보통, 3.99%는 불만족을 표했다.

이번 설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설문지를 활용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시민 1966명이 참여했다.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지역 시설 10개와 진남수영장,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등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설 3개가 대상이었다.

설문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형태, 시설 만족도, 운영 만족도를 19개 문항으로 만들었다.

시민들은 설문을 통해 체육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철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문했다.

시는 시설물 개선 요구 사항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

하고, 운영 개선사항은 검토 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또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공공체육시설 홍보와 친절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이번 설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곡성군은 동악산과 성룡사 입구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산과 들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이 진드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삼인동 약수터와 동악체육공원 입구 외에 이번에 동악산과 성룡사 입구(지동체육공원)에 추가

설치하며 곡성군에는 총 4곳에서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 세대에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를 각각 1개씩을 배부하기도 했다.

기피제를 뿌릴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쯤쯤가무시증을 매개하는 진드기의 접근을 막아 야외활동에서 우려되는 감염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군 보건의로원 관계자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모두 세탁하고 목욕을 해서 흠이나 있을 진드기를 없애야 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며 진드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순천시, 한평정원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순천시에서는 재능 있는 정원디자이너 발굴과 대한민국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6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출품작을 8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행복한 정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작가부, 일반부, 학생부로 나누어 접수한다.

'작가부' 참가 자격은 타 정원 공모전 작가부 출전 또는 입상자, 본대회의 일반부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자, 공공기관 또는 민간 공간 정원 작품 설치 경험자, 정원 관련분야 전문가 이상 자격자, 단 산입기사는 실무경험 2년 이상자로 접수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부'는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

며, 단 작가부 참가 자격을 갖춘 자는 일반부 공모 불가하다.

'학생부'는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관련 직업학교 및 대안학교, 전국 고등학교 정원 관련 학과(정원·산림·조경·화훼 등)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정원디자이너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가부 5개 작품, 일반부 23개 작품, 학생부 23개 작품 등 총 51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작품당 작가부 1천 8백만원, 일반부 2백만원, 학생부 3백만원이 지급된다. 참가자들은 선정된 정원디자이너를 토대로 9월초에 직접 정원을 조성해 페스티벌 기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시하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